

제주 하논성당의 위치와 건축 양식 고증에 관한 연구

김태일¹⁾ · 박찬식²⁾

A Study on the location and architectural style of Hanon Cathedral

Kim Tai-il¹⁾ · Park Chansik²⁾

요약 : 1900년 6월 12일 서귀포시 호근동 하논 지역에 설립되어 제주 산남 지역 천주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하논성당’은 제주 지역에서의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논성당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건축적 형태로 축조되었는지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정리와 복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분석에 초점을 두고 당시 제주에 파견되었던 신부들의 서한과 우리나라 천주교 건축에 대한 학술문헌을 중심으로 천주교 건축의 건축요소 정리와 이를 토대로 하여 하논성당의 전반적인 건축양식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제주의 천주교 건축은 기본적으로 초가를 모태로 하여 약간의 변형, 즉 확실한 구조체로 구성되지 않은 제주초가의 특징상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변형보다는 벽체 철거 등 최소한의 공간 변형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종교공간을 마련하여 전도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둘째, 초기 천주교 건축의 내부공간 구조와 부지의 조건에 따른 배치를 고려할 때 한쪽 측면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등 제주 지역에서의 하논성당에 대한 대략적인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하논성당의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종합적으로 추론한 기초 분석자료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서한자료를 발굴하고 이들 서한의 체계적인 분석과 아울러 종교건축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천주교 건축, 하논성당, 복원, 공간구성, 제주

Abstract : Hanon Cathedral was established in Seogwipo on June 12, 1900, Catholics have grown in southern Jeju. Hanon Cathedral is very important in the history of Catholicism in Jeju-do.

In this study, we should try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Hanon Cathedral. In addition, we will try to review the architecture of the Cathedral. In doing so, we will clean up the basis for restoring the Cathedral and want to set the direction of the restoration.

We basically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methodology of analysis of the literature. We will mainly examine the letter of Jeju Island priests and scholarly literature of Korean Catholic architecture. This will confirm the overall architecture of Hanon Cathedral.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eju's Roman Catholic architecture is essentially based on a variation of the thatched house. Religious thatched interior space made so slight variations.

Second, Cathedral congregation could enter the inner space only through the side of the thatched house.

As a result, through this paper we could speculate architecture and spatial configuration of Hanon Cathedral.

1)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Professor, Faculty of architectur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kimtaeil@jejunu.ac.kr

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Chairman,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cheju4843@hanmail.net

Key words: Roman Catholic architecture, Hanon Cathedral, restoration, Space configuration, Jeju-do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인 1900년 6월 12일 서귀포시 호근동 하논 지역에 설립되어 제주 산남 지역 천주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하논성당’은 제주 지역에서의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천주교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 뮈텔(Mutel) 주교는 프랑스 선교사인 페네 신부와 김원영 신부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1899년 4월 22일 제주성당(現 중앙성당)을 설립하고 1899년 11월 11일 서귀포 지역에 하논공소를 설립하게 된다. 초대 김원영(아우그스띠노) 신부는 1900년 6월 12일 지금의 서귀포시 호근동에 하논성당을 설립하게 되는데, 설립 당시 신자 20명으로 시작하였다.

따라서 하논성당의 위치를 확인하고 복원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로서는 천주교 활동의 기반이었던 장소와 상징적인 건축물을 통해 천주교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원을 통해 역사와 자연생태가 함께 어울리는 ‘성지순례길’로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써 제주도 천주교 신앙 및 역사문화 콘텐츠 또는 교육자료, 국내외 관광객들의 역사문화 여행을 위한 안내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논성당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건축적 형태로 축조되었는지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 정리와 복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약 113년 전의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복원 도면을 추측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하논성당 건립에 대한 문헌은 당시 신부들의 서한¹⁾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서한

에는 하논성당 건립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하논성당의 위치를 고증하고 성당 터 주변의 유적을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어서 초기 우리나라 천주교 건축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서한에서 기술하고 있는 건축 관련 요소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하논성당의 전반적인 건축양식을 추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3. 하논성당의 위치 고증

1) 지리적 검토

하논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귀포시 호근동에 해당되며, 해안과 400m 가량 떨어져 있다. 이 지역 남쪽에 삼대봉(해발 153.6m) 오름이 있고, 하천은 서쪽에 호근천과 생수천이 만나 천치연으로 흐르고 있다. 마을은 서흥동을 중심으로 서쪽에 호근동, 동쪽에 서귀동이 자리 잡고 있다. 하논 지역은 ‘하논[大畵]’으로도 불리는데, 이곳은 기생화산(오름)으로 분화구 직경이 약 1km에 이르는 마르(Maar)형 분화구이다(사진 1). 이 화산체는 분화구 주변의 지표면에 대하여 지하로 깊숙이 꺼진 형태이며, 수성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고, 2차적으로 형성된 알오름이라고 부르는 화구구가 있다. 이곳은 지질학 분야뿐만 아니라 구석기시대의 생수궤



<사진 1> 하논 분화구 -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마르형 분화구



<그림 1> 하논 주변 유적 분포도



<그림 2> 하논 주변 지적도(붉은색 부분은 하논성당터 추정지)



<그림 3> 하논 지역 지적 원도(1914년)(붉은색 부분은 하논성당터 추정지)



<사진 2> 하논 지역 전경과 하논성당 터(붉은색)



<사진 3> 하논성당 터 근경

유적을 비롯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구전에 의하면, 처음에는 물이 차 있는 연못이었으나, 13~14세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수로를 만들어 이곳에 물을 뺀 뒤 논으로 개답(改畓)하여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온다고 한다. 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이 필요하였는데, ‘덜망소’로부터 동남쪽 ‘걸메목’까지 물길을 내서 이 물을 천지연폭포로 흐르게 하였다. 현재와 같은 배수로를 만들고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한 때는 1941년이다. 당시 전라남도청은 미곡 공출을 위하여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하논 경작 농민들로 하여금 토기개량계를 조직케 하고, 이들을 동원하여 하논의 배수로 공사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제2 관배수로가 설치되어 배수가 원활해졌고 생산량도 다소 높아졌다.

원래 하논은 대부분 관답(官畓)이었다. 구한말 이전에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소작 형태로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 소유는 많지 않았다. 구한말 이후 사유지가 많아져서 작제는 100평으로부터 몇백 평까지 소유한 사람이 4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소유자 가운데는 하논마을 주민도 있었으나 80% 이상은 호근리, 서호리 주민이었고, 이들 대부분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한다.

2) 주변유적과 문화재

구석기시대의 생수케유적은 천지연 절벽 하단부가

움푹 팬 바위그늘유적이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25,000년을 상한으로 하는 후기구석기 유적으로 좁돌날몸돌 등 펜석기들이 발견된 곳이다. 탐라시대의 호근동 유물산포지는 하논 지역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적갈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하논 내에 논농사 지역에 조선시대 도자기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변에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매봉에는 조선시대 방어유적인 삼매양봉수가 위치하고 있다. 천지역 암벽에 마애명이 알려져 있다. 근현대유적으로는 삼매봉과 인접한 해안에 일본 군이 만들어 놓은 어뢰정기지가 있다.

이외에도 천지연을 중심으로 서귀포층패류화석 등 천연기념물이 산재해 있다(그림 1).

3) 성당 터 위치 고증

하논성당은 1900년 6월 하논 분화구 안에 형성된 마을의 4칸짜리 초가집을 구입해 설립되었다. 1901년 5월 신축교안을 거치면서 민군에 의해 성당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신자들이 죽거나 떠나버렸고, 1902년 7월 타케 신부가 본당을 홍로로 옮겨 버림으로써 성당의 흔적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 직후에 하논마을에는 16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나 4·3사건 때 군·경토벌대의 소개작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인근 호근리나 서흥리로 이주해버렸고, 마을은 1960년대 이후 대부분 감귤 과수원으로 변해버렸다. 때문에 하논마을과 하논성당 터는 사람들의 기



<사진 4> 호근동 194번지 일대 전경

역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상의 미비 때문에 성당의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뮌텔주교의 문서함에는 하논성당을 거쳐간 김원영, 무세, 타케 신부의 서한들이 소장되어 있어 당시 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논성당 부지와 본당 및 사제관으로 사용할 초가집을 구입한 김원영 신부는 우선 부지를 매입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저는 페네 신부님이 안 계신 동안에 두 말 두 되지기 보리밭 한 패기를 145냥에 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페네 신부가 서울로 올라가시며 집이나 과원을 좀 사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성철이라는 신문교우를 통해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위에서 말한 밭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위치는 외교인들을 개종시키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밭 위와 아래에 300가구의 많은 외교인들이 살고 있고 생수도 가까이에 있으며, 100보가 못되는 거리에 신문교우들이 살고 있습

니다.”(뮌텔문서 1900-38, 1900년 3월 22일)

“저는 라크루 신부님의 배려로 논이 많아서 한논(大畚)으로 불리는 정의군의 마을로 교우들과 상주하기 위해 며칠 후 떠날 것입니다. 저는 교우 집 하나를 빌려 본당 집을 살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뮌텔문서 1900-75, 1900년 6월 10일)

따라서 하논성당 부지는 하논마을의 주민 최철성의 집 가까이에 있는 밭을 매입하였으며, 이 부지에서 가까운 초가집을 매입하여 성당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하논성당 부지가 있던 밭의 북쪽인 호근마을과 하논마을을 포함하여 거주민은 300가구가 분포하고 있었다. 1904년에 작성된 『三郡戶口家間總冊』에는 당시 호근리(하논마을 포함)의 연가가 267호이고, 남자 566명, 여자 584명 합계 1,150명이라 하였다. 이 당시 와가는 없고 초가 1,053호가 있었다고 하여 김원영 신부가 밝힌 수치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하논마을의 주민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축교안이 일어나기 직전 조사한 교세통계표에는 신자 50명, 예비신자 70명 등 총 120명의 하논마을 교민이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으



<사진 5> 하논성당 터 주변 소로



<사진 6> 하논성당 터 주변 소로

므로,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영 신부가 언제 본당으로 쓰일 초가집을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901년 1월 28일자 서한을 보면, “지금 예비자들이 근 400명이 되고 영세자는 50명입니다. 그간 4칸 집과 집 마당까지 주일과 침례 때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하논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본당으로 활용할 4칸 집 초가집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논성당을 거점으로 전교 활동을 전개하던 김원영 신부는 신축교안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 4월 피정차 상경하였다가 다시 하논성당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하논성당은 신축교안의 과정에서 파괴되고 수백명의 신자들이 피살되었다. 김원영 신부는 새로운 부임지 목포에서 사태를 피해 바다를 건너온 하논성당 신자 3명을 만나서 피해 상황을 들었는데, 본당과 사제관이 파괴되고 복사 박고스마가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하논마을의 많은 남자들이 살해되었고, 다른 마을에서도 민군들이 교민들 345명을 죽였다는 것이다.(뮌텔문서 1901-75, 1901년 6월 12일)

신축교안을 거치면서 하논마을의 교세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제3대 주임신부로 1902년 4월 하논성당에 부임한 타케 신부는 “이곳 하논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마을에는 거의 과부들뿐인데, 젊고 늙은 과부 열한두 명이 제 집을 포함해 열한 채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당시의 어려운 실정을 드러내었다. 때문에 타케 신부는 이러한 하논성당의 열악한 실정을 인식하고 새로운 성당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현실을 밝혀놓은 타케 신부의 서한에 하논성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하논의 집으로 말하자면 허물어 버리기에 딱 좋을 만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 가장 좋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허술한 집 여기저기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은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지붕은 제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마루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에는 바람을 쉴 수도 없습니다. 반면 방안에서는 여기저기 벽 틈을 통해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구나 그곳으로 뱀과 다른 벌레들이 지나다닙니다. 집은 논에서 10m 정도 되는 곳에 있으므로 이 마을 사람들의 절반이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제게 키니네를 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곳은 완전히 고립된 마을로 남자들이 없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좋지 않습니다.”(뮌텔문서 제주-82, 1902년 6월 17일)

즉, 하논성당은 논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는데, 당시 하논마을 민가들의 상황과 다를 바 없었다. 지적원도(1914년 제작)를 통해 보건대(그림 3), 하논마을은 논으로 조성된 지대의 남쪽 일부 면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로를 따라 양쪽으로 분포한 민가들의 중심부에 하논성당은 위치하고 있었다.

2001년 출간된 천주교 제주교구의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는 서귀포교회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 일대로 하논성당 터 위치를 추정하여 놓았다. 본 조사팀이 면담한 강두선(姜斗先, 1933년생, 1949년까지 하논지역 거주)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고모 증언을 근거로 서귀포시 호근동 131번지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 또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볼 수는 없다.

호근동 194번지와 131번지는 마을길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부지로서 이 일대를 포괄적으로 하논성당의 추정지로 보면 무방할 듯하다(그림 2와 사진 2, 사진 3으로 주변도로와 경작현황참조하고 사진 4와 사진 5, 사진 6 하논성당 추정지 주변현황참조). 따라서 하논성당 터 추정지를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4) 성당 터 주변 지표조사 결과

하논성당 터 추정지에 대해서 현장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당 터 추정지인 호근동 194번지 일대는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



<사진 7> 하논성당 터 주변 경작지 내 판석(구들장)



<사진 8> 하논성당 터 주변 경작지 내 판석(구들장)



<사진 9> 하논성당 터 주변 경작지 내 판석(구들장)

어 있다. 지표상에 남아 있는 건물지는 이미 파손되어 형태를 찾아 볼 수 없었다(사진7, 사진8, 사진9). 성당 터 추정지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구들장으로 사용했던 것으로서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석재들을 주변 과수원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과수원 경계 둘레에 비교적 큰 판석형 석재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적원도(1914년 제작) 도면을 검토한 결과 성당 터는 옛 소로변에 위치해 있고, 성당 터 부지 내부에 비교적 오래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건물지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4와 사진 5, 사진 6 참조).

4. 우리나라 초기천주교 건축의 특징

천주교가 전래된 1784년 이후 종교건축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건축이 등장하게 된다. 서양에서는 대부분의 종교건축물은 석조 혹은 벽돌조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 종교건축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기존의 한옥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목가구방식으로 건축되었다. 대표적인 유형이 지방에 현존하는 한옥공소(公所)이다²⁾. 일반적으로 공소는 본당 소속 신자집단으로 인정하는 교우촌 혹은 교유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소도시에 건축되었다.

본당의 신부는 봄과 가을에 공소를 방문하여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성사와 미사집전은 공소의 강당(講堂)에서 거행되었고 강당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주택에서 성사를 주었는데 그 집을 공소집이라고도 불렀다³⁾.

일반적으로 공소의교세가 확장되면 본당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는데 하논공소의 경우는 교세확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초대 김원영(아우그스띠노) 신부를 중심으로 한 교구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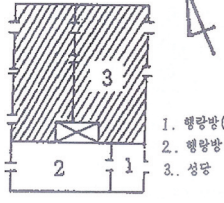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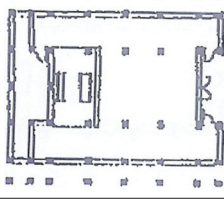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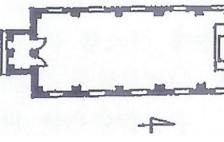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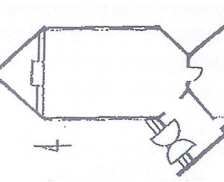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면 공소건축은 성당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어 그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공소건축은 성당건축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⁴⁾.

우리나라에서의 공소 건축 혹은 성당 건축의 변천과정상의 시대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표 1).

제1기(1784년~1887년): 천주교의 전래와 수용, 박해시기

제2기(1887년~1910년): 공소건축의 태동기(신

<표 1> 우리나라의 공소건축 및 성당건축의 시대별 변천과정의 특징

시대구분	건축구조	배 치	평 면	사 례 ⁶⁾
제1기	-	-	-	-
제2기	한옥목구조	- 성당, 사제 관, 행랑, 헛간이 마당중심으로 □자형성.	- 제단은 남서향배치. - 측면에 설치된 3개의 출입구를 통해 진입 - 제단 뒷면에 행랑방과 부엌 설치 - 중앙에 남녀구분 칸막이 설치	구합리 양촌 공소  1. 행랑방(2)의 부엌 2. 행랑방 3. 성당
제3기	한옥목구조	- 동서측으로 배치	- 장방형의 평면구조로 정면으로 진입 - 정면 5칸, 측면 7칸으로 구성(내부공간은 3칸, 6칸) - 제단 주변에 난간 설치 - 제단후면과 천정에 목재아치와 기둥 조각	서산동문 상흥리 
제4기	시멘트 벽돌조	- 동서측으로 배치	-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베이 마다 장방형의 창을 설치 - 바닥은 장마루를 설치함 - 제단 뒤쪽은 방을 설치-진입구에 개방적인 포치 설치	신평 음섬이 
제5기	다양한 재료	- 동서측으로 배치	- 삼각형의 제단 - 제단 좌우에는 긴 수직창 설치	신합리 세류리 

양의 자유와 개화기)

제3기(1910년~1953년): 공소 발전기(일제시대와 격동기)

제4기(1953년~1980년): 공소의 전성기

제5기(1980년이후~): 전환기의 공소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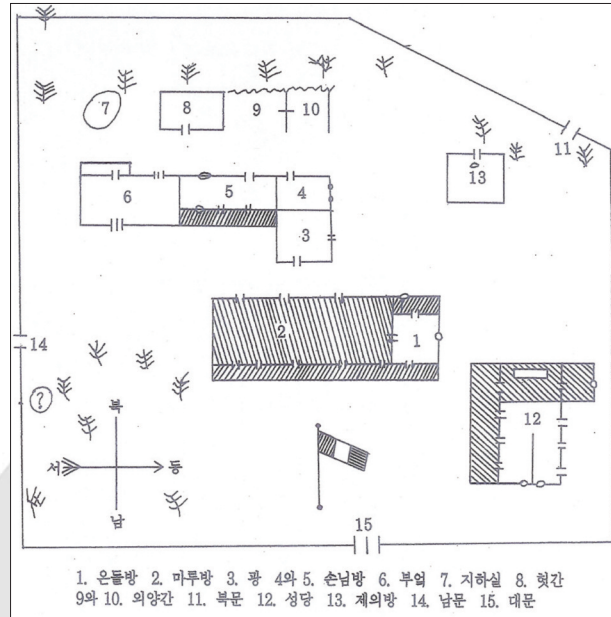
제1기의 공소건축은 특별히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건축물을 짓기 보다는 양반의 집을 빌려 교리를 가르치거나 신자들이 모여 종교적인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건축관 관련된 특별한 특징을 거론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본격적으로 공소를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제2기에 들어서면서이다.

제2기의 공소건축은 대부분이 한옥을 기본모델로 하여 건축한 목구조의 공소건축으로 넓은 공간을 집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작은 공간을 신부의 개인공간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시기는 제주 지역 남부지구 모태(母胎)성당인 하논성당이 건축된 시기(1900년6월12일)여서 건축방식이나 배치, 공간구조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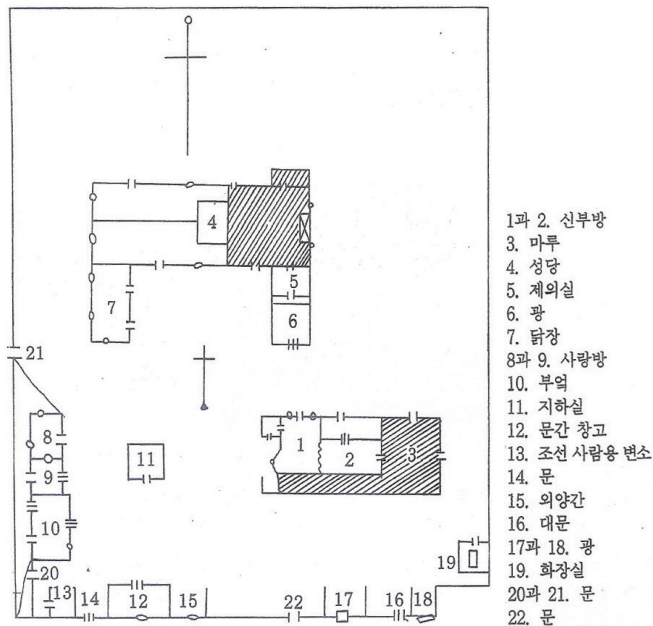
제3기 공소건축은 거의 대부분 5량구조의 한옥목구조가 많으며 천장은 대들보가 지붕트와 함께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닥은 나무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남녀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유교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4기 공소건축은 콘크리트조의 공소가 많이 건축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공소건축은 서양건축의 영향을 받아 공소건축의 평면도 성당건축으로서의 공간구



<그림 4> 뒤테르트르 신부댁 약도



<그림 5> 부이수 신부댁 약도

성을 가진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며 시멘트벽돌조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 역시 넓고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5기 공소건축은 보다 실용적이고 복합적인 기능을 요구하고 사용 재료에 있어서도 시멘트벽돌뿐만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하는 종교건축으로 변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뮈텔주교의 일기⁷⁾에도 성당건축에 대한 귀중한 도면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참고할 부분이 많다.

1901년 11월28일의 기록에 뮈테르트르 신부택을 둘러본후 그린 약도(그림 4)가 있는데 성당의 공간구조는 제단과 예배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측면에 부속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예배공간은 남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성당의 방향은 장방형의 장축이 남북으로 놓여 제단이 북측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진입은 성당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01년 11월30일 예배를 위해 방문했던 부이수 신부택을 그린 약도(그림 5)를 보면 장방형의 성당건축 장축이 동서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제단 뒤편에 부속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예배공간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은 측면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905년 12월9일 김 스터왕 신부택을 방문했을 때 그린 성당 평면(그림 6)을 보면 장방형의 성당 장축이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제단 뒤편으로 관련

부속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배공간에 기둥이 있고 남녀공간으로 구분되게 계획된 점등이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성당으로 출입 역시 측면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5. 문헌 분석을 통한 하느성당의 건축양식 추론

1) 하느성당에 대한 문헌정리

하느성당의 초대 김원영 신부는 1900년 6월 12일 지금의 서귀포시 호근동 194번지에 하느성당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신자는 20명이었으나 1901년에는 신자가 137명으로 늘어났고 예비신자는 무려 620명이 되는 등 확장되었다. 신축교안 이후 제3대 타케(에밀리오) 주임신부는 1902년 6월 17일에 지금의 서귀포시 서흥동 204번지 일대로 성당을 옮겼다.(사진 10)

하느성당 건립에 대한 자세한 문헌이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건축형태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당시 신부님들의 서한을 통해 하느성당 건립과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서 건축적 특징을 유추해보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뮈텔(Mutel) 주교의 서한〉

날짜: 1900년 8월

- 호근리 지역의 이른바 하느 남쪽에 교당을 신설하니 패악하고 완악한 무리들이 그곳에 빌붙어 성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한갓 사람들을 해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면서 면임(면의 장)들을 억지로 죄목을 꾸며 곤장을 쳐서 옥에 가두고는 사사로이 속전을 받고 시골남녀들을 영을 내려 잡아 가두고 함부로 국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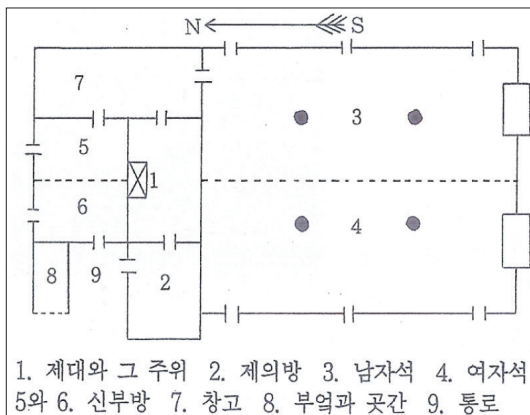
〈김원영 신부의 서한 1〉

날짜: 1900년 9월6일

- 현재 저의 지역에만도 거의 60명내지 70명의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김원영 신부의 서한 2〉

날짜: 1901년 1월28일



<그림 6> 김 스터왕 신부택 성당 평면



<사진 10> 홍로성당의 초가 본당 앞에 서있는 타케 신부 (한라일보 DB)

- 지금 예비자들이 근 400명이 되고 영세자는 50명입니다. 그간 4칸 집과 집 마당까지 주일과 천주교 때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김원영 신부의 서한 3>

날짜: 1901년 6월10일

- 내일 라크루 신부님과 같이 정의에 갈 것입니다. 저는 교우 집 하나를 빌려 성당 집을 살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타케 신부의 서한1>

날짜: 1902년 6월17일

- 바가의 집은 겨우 밭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집(즉 하논성당의 사제관)과 떨어져 있습니다.
- 하논의 집으로 말하자면 허물어 버리기에 딱 좋을만하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무세 신부에게 이 집에 대해 말하면서 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략) 이 허술한 집 여기저기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바닥'은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습니다. 문 앞에 있는 지붕은 제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마루'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그리고 연중 내내 그렇다고 하는데- 바람을 쐬 수도 없습니다. 반면 방안에서는 여기저기 벽 틈을 통해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구나 그곳으로 뱀과 다른 벌레들이 지나갑니다. 집은 논에서 10m정도 되는 곳에 있으므로 이 마을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말라리아 열병 때문에 제게 키니네를 달라고 합니다.

2) 하논성당 건립을 위한 건축요소의 검토

앞서 천주교 건축관련 학술내용 및 서한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초기 성당건축의 특징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건축양식): 하논성당은 기존의 제주초가를 개조하여 활용한 것이 아니라 신축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그 당시 육지부에서 적용되어 왔던 성당건축의 형태를 참고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육지부의 경우 한옥 목구조를 중심으로 신축되었으나 제주의 경우 초가형식을 건축되었음을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타케신부가 1902년 6월 17일에 서귀포시 서흥동 204번지에 이전 신축한 홍로성당의 사진(사진 10)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배치): 본당을 비롯하여 사제관 등 비롯한 부속시설을 설치하였던 육지부 성당과는 달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본적인 건축물은 본당과 사제관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당배치는 장방형의 장축이 남향 혹은 남서향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사제관은 본당 배치와의 관계상 장축이 동서방향으로 놓여 남향을 취함으로써 기본적으로 L자 형태의 배치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평면구조): 평면의 구조는 4칸집의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제단은 남향 혹은 남서향으로 배치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측면을 통해 출입했으리라 추측되며 제단 뒷편에 행랑방 혹은 제의실 등을 설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는 유교적인 영향이 작용하여 예배공간의 중앙에 남녀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넷째(제단): 당시에 조성된 육지부의 본당건축양식을 보면 제단은 난간 없이 최소한의 형식으로 제단이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바닥은' 서한의 내용으로 보아 하논성당의 경우 "바닥이 땅과 같은 높이여서 위아래로 습기가 차 있다"라는 내용과 '마루가 없어서 때문에 비가 올 때 바람을 쐬 수도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예배공간의 바닥은 거의 지면에 가깝게 나무널판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지붕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툇마루 역시 설치되지 않고 측면으로



<그림 7> 호근동 194번지 지적도(왼쪽)와 배치계획안

바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6. 하논성당 복원을 위한 도면 검토

당시의 기록들이 많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앞서 하논성당 건립을 위해 관련 문헌의 건축적 검토사항을 기초로 하여 하논성당건립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하논성당 배치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주어진 부지를 효율적 사용과 아울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중의 하나이다. 하논성당의 경우 정확한 기록은 없어 추측의 한계는 있으나 당시 건축되었던 육지부의 성당배치방식을 보면 특정한 방향을 의식하여 배치되기보다는 부지의 여건에 따라 자유스럽게 배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당과 사제관의 기능을 고려할 때 안거리와 밖거리와 같이 대립적인 배치보다는 부지이고 기존 돌담을 따라 안쪽으로 진입하고 서쪽의 숲을 배경으로 본당, 진입부 부근에 사제관이 배치되는 L자 배치형식으로서 진입방식은 마당을 통해 진입하는 형식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남쪽 아래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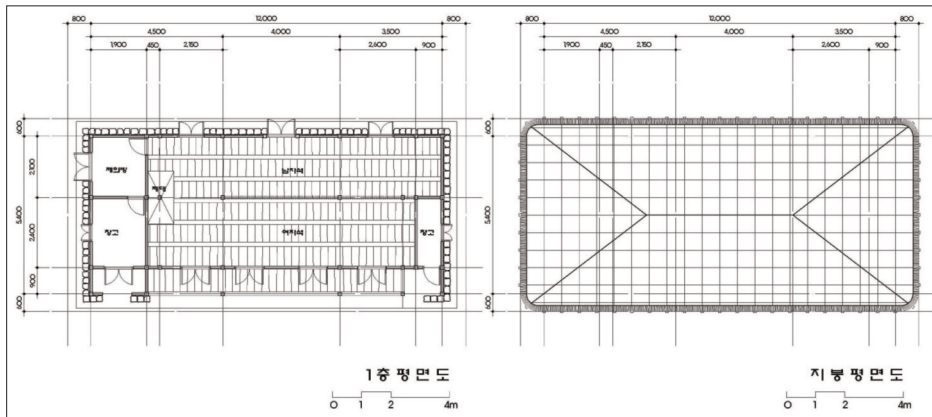
배치함으로서 본당과 사제관과는 구별되도록 배치함으로서 종교건축에서 요구되는 엄숙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림 7).

2) 하논성당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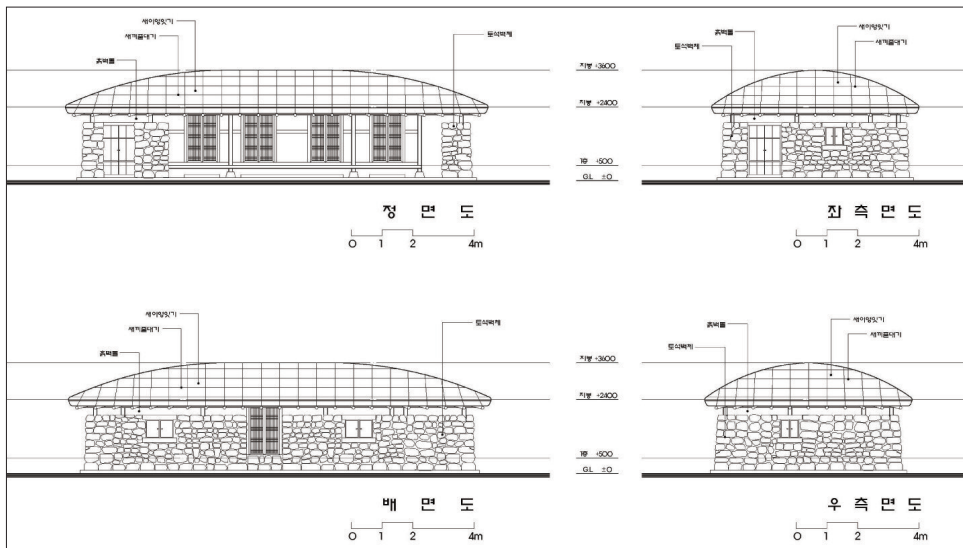
당시의 사회여건을 고려한다면 하논성당 건축시 지역의 건축기술과 기술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또한 척박한 하논주변 여건에서 마을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주거양식은 거의 대부분 초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서한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 및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초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제주초가건축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4칸의 본당건축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8, 그림 9).

특히 당시 건축된 육지부의 성당건축의 공간구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단변(短辺)의 벽면중앙에 제단이 위치하며 예배공간은 남녀공간으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제단 뒤편은 제의실 및 창고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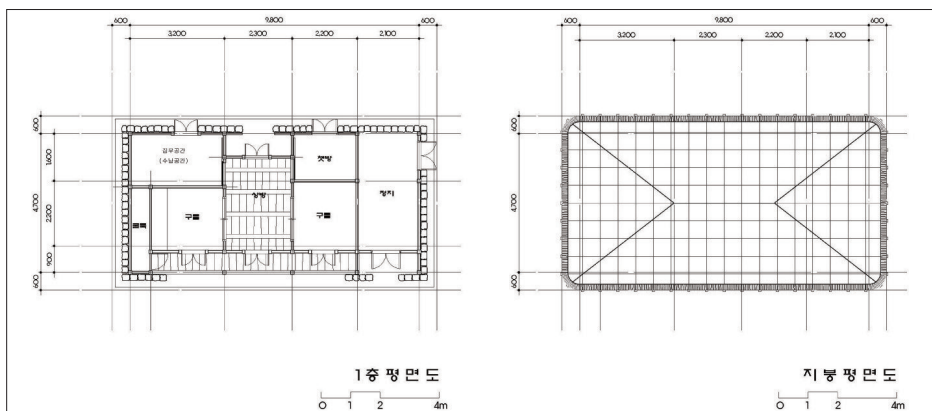
그리고 예배공간의 출입방식은 육지부의 경우 장변(長辺)의 양측벽면을 통해 출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하논성당의 경우 초가의 평면 및 배치구성상 장변(長辺)의 한쪽측면에 개설된 3~4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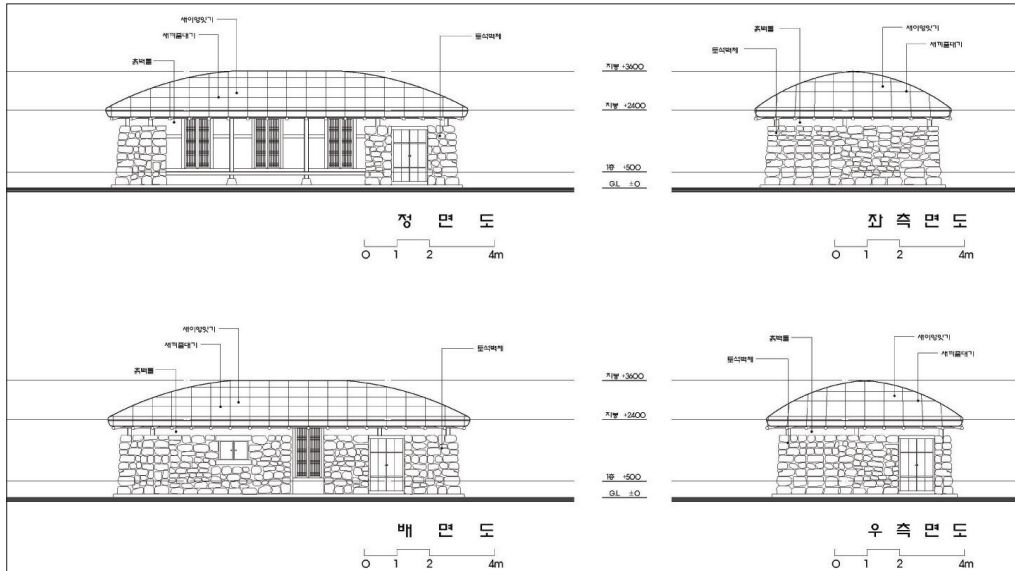
<그림 8> 하논성당의 평면도 및 지붕도



<그림 9> 하논성당의 입면도



<그림 10> 사제관 평면도 및 지붕도



<그림 11> 사제관의 입면도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는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예배공간의 바닥은 마루로 구성되며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출입구 전면에 빗마루를 두었을 것이다.

3) 사제관

사제관의 경우 제주초가의 주거형식을 그대로 수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광 등은 집무공간 혹은 수납공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0, 그림 11)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본당과는 달리 사제관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즉 장방형의 장축이 동서향으로 놓여 기본적으로 남향배치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7. 결론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 건축양식은 기본적으로 한옥을 모태로 하여 종교 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는 적절한 종교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에 보다 밀착

하여 전도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남부지역 천주교 신앙의 모태가 되었던 113년 전 하논성당을 복원하여 성지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제주의 천주교 건축은 기본적으로 초가를 모태로 하여 약간의 변형, 즉 확실한 구조체로 구성되지 않은 제주초가의 특징상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변형보다는 벽체 철거 등 최소한의 공간 변형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종교공간을 마련하여 전도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 천주교 건축의 내부공간 구조와 부지의 조건에 따른 배치를 고려할 때 한쪽 측면을 통해 내부공간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등 제주 지역에서의 하논성당에 대한 대략적인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하논성당의 건축양식과 공간구성을 종합적으로 추론한 기초분석자료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서한자료를 발굴하고 이들 서한의 체계적인 분석과 아울러 종교건축 관련 자료들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주

- 1)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제주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천주교 제주교구, 1997.
- 2) 박광현·김태영, 「한옥공소의 목구조 방식에 나타난 민간기술자의 현장기법」,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1호 통권36호, 2010, 49쪽.
- 3)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479쪽.
- 4) 김문수·홍승재, 「공소 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2호, 1996, 165쪽.
- 5) 김문수·홍승재, 「공소 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2호, 1996의 자료 인용.
- 6) 김문수·홍승재, 「공소 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6권 제2호, 1996, 165쪽.
- 7) 천주교 명동교회 편, 『뫼텔주교일기』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16(2).

박광현 · 김태영, 2010, “한옥공소의 목구조 방식에 나타난 민간기술자의 현장기법”,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2(1).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997,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천주교 제주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천주교 명동교회 편 『뫼텔주교일기』 III.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2006, 한국가톨릭대사전.

박찬식, 2007,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박찬식, 2013 1901년 제주민란 연구, 도서출판 각. ㉿

■ 참고문헌

김문수·홍승재, 1996, “공소 건축의 변천과정과 시대

투고일 2013. 12. 16

수정일 2013. 12. 29

확정일 2013. 12. 31